

# 윤병태 나주시장 “국가균형발전 영산강 시대 열겠다”

제15회 한·일 공동 세미나서  
민선 8기 나주의 성과 소개  
인구소멸 극복 정책 제시도  
“지방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윤병태 나주시장이 한·일 공동 세미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방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선 8기 나주시 성과  
와 비전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서울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  
본자치체국제화협회 주최로 ‘제15회 한·  
일 공동세미나’가 개최됐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국제자매결연도시  
인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히로타 가  
즈야스 시장과 함께 양국을 대표해 기조  
강연을 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이 당면한 과제  
를 주제로 관계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 실  
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로 지  
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  
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  
이라는 제목으로 양국 전문가,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을 진행했다.

윤병태 시장은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라  
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윤 시장은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중  
심지, 고려·조선시대 나주목의 역사적 위  
상과 규모를 재조명했다.

이어 16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해온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 한국에너  
지공과대학교(켄텍) 설립 등을 통해 국  
가균형발전 성공 모델로 나아가는 현재  
의 나주를 설명했다.

또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  
구 및 교육자유특구 선도지역 지정, 푸드  
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공모 선정, 취업  
청년 무상임대주택 공급 등 전국 최초 사  
례와 전남 첫 약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전  
체 마을 경로당 입식테이블·의자 공급 등  
민선 8기 전반기 10대 성과를 언급했다.

윤 시장은 나주시가 국가균형발전 거  
점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농생명’, ‘에  
너지신산업’, ‘관광 활성화’ 3대 주축 사  
업과 ‘귀촌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출  
산육아지원’ 등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한



윤병태 나주시장.

나주시 제공

선도 정책도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밸리 기업 369개사 유치,  
에너지국가산단 조지 조성, 켄텍 연계 에  
너지 클러스터, 조전도 도체 시험장비 구  
축 선점에 따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추진 등 에너지신산업 중심도시 나주의  
비전을 설명했다.

57만평 규모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

화,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영산강 파  
노라마 관광명소화, 나주목 문화재 복  
원, 2024나주축제 및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 개최, 옛 나주극장·화남산업부지 문  
화 재생 등을 통한 500만 나주관광시대  
청사진도 소개했다.

인구소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귀촌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교  
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교육도시, 어  
떠한 조건과 제한 없는 출산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읍면 소재지 농촌 중심지 활  
성화, 농촌 공간 정비, 귀농귀촌 선도마  
을 조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육발  
전특구 지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과 연  
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난임부부시설  
비·출산장려금·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  
건 폐지, 양육 걱정 없는 365보육실 구축  
등을 모범 정책 사례로 들었다.

윤병태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현안은  
인구 감소 문제로 해결을 위해선 지속가  
능한 균형발전 생태계 조성, 지방이 잘사  
는 나라, 지방으로 사람이 몰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대식  
장성군 남창계곡 일원

장성군이 영산강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탐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남창계곡 일원에서 ‘제15회 영산강 살리  
기 대탐사’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전남 청소년과 대학생, 환경단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탐  
사는 ‘영산강, 생명의 강으로’라는 주제  
로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남창계곡 발대  
식으로 시작해 장성호, 황룡강을 도보 탐  
사하고,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으로 이동  
해 선박 탐사에 나선다. 이어서 영산대  
교, 죽산보, 영산강 하굿둑을 찾아 자전  
거 탐사를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 수생태계, 동식  
물과 향토문화, 역사 등을 조사하며 영산  
강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고 보전 방안  
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하천의 미래  
모습’에 대한 조별 발표도 진행된다.

장성=유병현 기자

‘군민 행복 증진 기본 계획 수립’  
곡성군, 맞춤형 지표 개발

곡성군이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행복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  
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  
는 국민총행복연구소 이재경 소장이 그  
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은 전 군민 행  
복도 향상과 행복 취약계층 행복도 향상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군 특  
성에 맞는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에 착수  
했다.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  
를 실시해 ‘곡성만의 행복 데이터’를 축  
적했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4개년의  
분야별 행복 정책 추진 과제가 수립될 예  
정이다.

보고회에서는 군민 행복 수요에 대응  
하고 있는 기존 추진 사업은 보완, 강화하  
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는 새로  
운 정책을 발굴하는 기본계획 수립 전략  
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기존 추진 사업 51건, 신규  
사업 31건 등 총 82건의 정책에 대한 심  
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  
해 군민들의 실제 행복 수요를 정확히 파  
악하고, 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의 보완과 함  
께 새로운 정책 발굴을 통해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 증진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 군민 행복위원회와 전  
문자 자문을 거쳐 8월까지 군민 행복 증  
진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하게 된다. 또  
한, 행복 증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은 업  
무 추진부서와 정책 속의 과정을 거쳐  
2025년도 시책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  
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은 지난달 29일 대동면 외덕마을을 방문해 군민들에 이미용, 안마, 키오스크 체험, 이동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행복버스를 운영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폭염 속 휴식 위한 전남행복버스 운영

함평군은 폭염에 지친 군민들에게 활  
력을 전하기 위해 전남행복버스를 운영  
했다고 밝혔다.

전남행복버스는 도심에서 떨어진 주민  
을 찾아가 보건, 문화, 민원상담 등 맞춤  
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  
로, 지난달 29일 함평군 대동면 외덕마을  
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봉사활  
동을 펼쳤다.

이번 함평군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마  
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안마, 키오  
스크 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  
다.

이와 함께,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군  
민원봉사과의 찾아가는 민원창구와 보건  
소의 치료 이동진료도 함께 실시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주민들에게 생과일주

스 등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  
었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전남행복버  
스가 의료·복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군  
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했다면 한다”  
며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협력 기관 간담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협력 기관인 담양소방서 예  
방안전과 예방홍보팀과 간담회를 진행했  
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군은 주거 긴급 수리  
및 안전 점검, 생활 안정금 지원 등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소방서에서는 취약계  
층 가구의 안전진단 및 위험 요인 조치 및  
장애물 제거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  
한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담양소방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이웃에게 주택 소방 안전 점검, 구  
급 키트 지원,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등  
일상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서와의 협  
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군민이 일상에  
서 안심할 수 있는 담양을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 바로 알기 탐방’ 프로그램  
화순군, 대학생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달 25일  
과 26일 양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을 대상으로 ‘화순 바로 알기 탐방’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의 역·문화와 미  
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학생들이 거주 중인 화순을 제대로 알  
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 바로 알기 탐방’은 화순 적벽의  
웅장함과 고인돌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하는 문  
화탐방을 시작으로 화순군 전략산업의  
상징인 백신평구 방문에 이어 화순의 새  
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한 개미산 전망대  
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편성·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군수가 깜짝 방  
문하여 지역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화순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화순=김선중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점검  
영광군, 폭염 대비 근무 환경 조성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따라, 관내 체  
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주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 폭염특  
보가 계속되면서 야외 농작업을 하는 외  
국인 계절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농작업  
현장과 고용주 제공 숙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  
시로 살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농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법으로는 △  
TV, 인터넷, 재난문자 등을 통한 기상상  
황 수시 확인 △ 무더위 시간대(12:00~  
17:00) 농작업 자제 △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갖기 △ 충분한 수분 섭취 △ 음급상  
황 시 인근 보건소 방문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2인 1조 작업 등이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